2011년 하계 연찬회 참석기

이사 | 최남용

2011년 하계 연찬회를 2011년 6월 16일-17일 양일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1주일전 주간 예보에는 15일부터 16까지 비가 온다고 예보를 하여서 주최 측에서도 우산을 준비하여 가지고 오라고 해서 1년 내내 산에서 고독과 싸우면서 힘들게 살아온 산림경영인이 연찬회를 맞이 하여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고 뜻있는 회원분과 만남의 기회를 가져서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기회가 망가져 버리지 않나 우려를 하면서 제발 그날만은 좋은 날씨가 되기만을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출발한 6월 16일은 날씨가 너무나 맑고 쾌적한 것을 보고 기분이 너무나 좋았다. 충청도 공주 백제 문화가 꽃을 피우고 낙화암에서 삼천 궁녀가 백마강에 투신한 역사 깊은 공주에서 일박을 하면서 연찬회를 가진 것에 대하여 저도 산림경영인에게도 뜻있는 장소라고 생각한다.

연찬회에 참석한 내빈도 공주출신 국회의원 심대평 의원님과 산림청장님과 그리고 공주시장 산림조합장, 시의회의장 등 비중 있는 내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신 것에 대하여 그간 산림경영인의 위상이 한층 고취되어 가는 감이 있었다. 그리고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이중락 과장님이 산림경영인의 지원 사항에 대하여 강의한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강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고 있는 직불금 관계에 대하여서도 여건이 형성되면 지불하여야 하지 않느냐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고 산림경영인 협회에서 T.F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자구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도 진일보된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에 대하여 산림경영인 모두가 앞으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강의가 끝나고 공주 박물관과 무열왕릉을 관람할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하여 참석한 회원이 유서 깊은 장소를 관람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알찬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저녁이 끝나고 밤 막걸리로 여흥을 즐기게 하였고 공주의 밥을 잘 보관하여 시식할 수 있게 하는 등 지방 특산물을 홍보하는 것이 너무나 이색적이었고 감동적이며 밥을 많이 소매하여 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한옥에서 하룻밤을 10명씩 자는 것이 오래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연기군이 없어지고 새로 건설된 세종시. 우리가 매스컴에서 보는 것보다 더 규모가 방대하고

매력적인 도시라는 것을 보고 한편으로 시기심도 났지만 살기 좋은 행정도시가 국제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국력이 날로날로 성장되어 가는 것에 대하여 흐뭇함을 느꼈다. 산림조합 펠릿 공장 우리나라 폐자원을 이용하여 대체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지금은 경제성이 좀 희박하지만 연료대가 고공행진을 계속 할 때는 경제성이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조합에선 선물까지 챙겨 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따름이다.

장류관 들어가는 진입로가 험난하지만 장류사업단지에 들어가 보니 16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장독을 모으고 몇백년인가 폭포수가 씻기어 간 돌을 수집하여 진열한 것을 보고 예술을 아시는 분 같다. 전국에 있는 장독을 진열 하는 것을 보고 전통문화에도 조예가 있는 분 같은데 한 가지 어색한 감은 일부 돌 작품을 기계로 제작되어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 보는 이로 하여금 석연찮은 감이 있었다.

누군들 집에 된장이 없겠습니까만 정성 들여 만든 된장을 구입하였다. 오이 고추에다 찬물에 밥을 말아 더운 날에 나무 그늘에서 찍어 먹는 맛이 그만일 것 같아서다.

충남산림박물관 앞에 피나무 향기가 지금도 내 곁에서 풍기는 것 같아 피나무 묘목을 구입하여 집 뜰에 심어 놓으면 매일 새로운 활력소가 살아날 것 같다. 금년 가을에는 꼭 심어 놓을까 한다. 그곳에서 몇 가지 조경수를 눈여겨보고 왔기에 생산적인 곳을 방문한 것 같다.

마지막 방문지인 베어트리파크식물원 개인 식물원으로 국내 최고 시설이라고 해서 개인이 얼마나 많은 자금력이 있어 이곳에 식물원을 하였겠느냐 하는 호기심이 있었다. 보는 곳마다 장난이 아니었다. 수많은 나무와 인력 그리고 돈이 조화를 잘 이루어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받을 수 있게 조성하여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정상에 두 분의 동상에 평소의 소신과 철학이 있는 글을 보고 인생 마무리를 잘 지으시고 살아오신 분과 같았다.

산림경영인 회원분도 찬란한 유산을 남기려고 열심히 산을 경영하신 분도 계실 것이다.

나도 언젠가는 이분들과 같은 길을 걸어 보고자 흉내를 내고 가는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예정시간보다 두 시간 넘게 진행된 2011년 하계 연찬회는 어느 해보다 알찬 행사가 되었고 산림경영인에게 시사 한바가 크다.

충남지회장은 한 가지라도 더 보게끔 하려고 동분서주하시고 본회 이과장님은 회원의 부족한 점을 메워 주려고 노력한 봉사정신이 참 인상적이었다.

2일간 산림경영인 하계 연찬회를 알뜰하게 계획하고 진행하신 본회 김준기 전무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보람있는 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하계 연찬회를 개최할 광주.전남 회원에게는 큰 짐을 짊어지고 가는 기분입니다.

내년에 전라도에서 만나요 !

2011년 6월 30일